화순 공기업 '수상한' 300억대 공모사업

(주)바리오화순, 직업체험테마파크 조성 사업 논란
구매규격 사전 공고 규정 어기고 공모 기간 지나치게 짧아
평가 기준도 5일새 2차례 변경…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주)바리오화순(옛화순리조트)이 화순군 도곡온천관광지에 건립을 추진하는 직업체험테마파크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사업비 300억원 규모의 직업체험관, 숙박시설 공사업체를 선정하면서 업체선정 평가기준이 5일간 수차례 바뀐데다, 공모기간 또한 업계 관례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주)바리오화순이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허술한 업체선정을 통해 부적격 시공업체가 선정돼 공사가 이뤄질 경우 화순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공적자금 손실을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화순군, (주)바리오화순, 건축업계 등에 따르면 (주)바리오화순은 지난달 22일 직업체험테마파크 및 숙박시설 조성사업 기본·실시설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조달청에 냈다. 같은달 24일엔 직업체험관 체험물 설계 및 제작·설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올렸다.

화순군 도곡온천 관광지 안 16만107㎡(4만8432평) 부지에 306억원을 투입해 숙박시설과 직업체험테마파크, 직업체험관 체험물을 지을 업체 선정을 위한 것이다.

건설 불황기에 수백억원짜리 건축물을 지을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가 나자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모았지만, 관심은 이내 불만과 의혹의 시선으로 바뀌었다.

업체 측이 입찰공고를 내면서 '구매규격 사전공고'를 하지 않은데다, 업체 선정 평가 기준이 5일새 2차례나 바뀌면서 공모 자체가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구매규격 사전공고는 입찰공고에 앞서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 장터에 구매규격을 공개해야하는 제도인데, 업체 측은 이를 생략했다. 입찰 참가 희망업체들 사이에서 "입찰 공고 전 발주 서류를 공개하지 않다보니 입찰 참여 희망업체로선 애초부터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공모안 제작기간을 각각 15일과 30일로 제한한 점도 논란거리다. 직업체험테마파크 및 숙박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 직업체험관 설계 및 제작·설치사업 공모안을 제작, 제출하는 기간이 업계 관례와 비교해 유달리 짧다는 것이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입찰공고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두 가지 사업의 사업비는 각각 209억 원, 97억 원으로 규모가 작지 않다. 이정도 규모면 최소 50~60일의 공모안 제작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했다.

직업체험관 체험물 설계 및 제작·설치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이 최초 공고일인 5월 19일부터 5일 동안 2차례나 변경된 점도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공개된 평가 기준은 최근 5년 이내(공공전시시설, 체험 시설 등 기타 유사한 체험공간 포함) 체험물 제작 설치 실적에 대한 누계실적 및 최대실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달 19일 최초 공고된 평가요소는 누계실적 200억, 최대실적 90억 이상이 만점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바뀐 공고는 누계실적 100억 이상, 최대실적 50억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만점을 받도록 돼 있다가, 24일 최종 공고된 평가요소는 누계실적 150억원, 최대실적 97억원으로 변경되는 등 논란거리가 적지 않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광주지역의 한 건축사는 "실적평가 기준이 2차례 바뀌고, 공모안 마감 기한도 지나치게 짧다보니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종안 ㈜바리오화순 대표는 "입찰 공고 전 구매규격을 공개해야하다는 것을 몰랐다. 공모안 제작 기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실적평가 기준을 번복한 것은 잘못 작성된 서류가 공고돼 정정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바리오화순은 폐광지역인 화순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한국광해관리공단, 화순군, 강원랜드가 출자해 지난 2007년 설립된 공기업이다. 지난 2013년 ㈜화순리조트에서 ㈜바리오화순으로 법인명을 변경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5·18 상징 '광주민중항쟁도' 복원추진위원회
문 대통령에 벽화 복원 호소 편지 '눈길'

5·18 민중항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인 '광주민중항쟁도'의 복원을 위해 모인 '광주민중항쟁도벽화복원추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벽화 복원을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올렸다.

'광주민중항쟁도벽화복원추진위원회'는 국민이 정부에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광화문 1번가' 사이트에 민중항쟁도를 통해 사회 곳곳에서 소중한 민주의 역사가 존재하고 이를 지켜가고자 하는 국민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어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남겼다고 14일 밝혔다.

광주민중항쟁도벽화복원추진위원회는 '광주민중항쟁도'를 의인화해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작성했다.

이 편지에서 광주민중항쟁도는 "세상에 빛을 보게 한 전남대학교 학생들의 정성스런 손길은 6월 항쟁의 기억, 5·18 민중항쟁의 정신 그리고 4·19혁명에 이르는 먼 과거의 기억과 역사적 교훈을 남겨줬다"고 적었다. 이어 "저는 건물 벽에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이고 역사다"며 "과거에도 그리했고 앞으로도 저를 찾는 이들에게 민주주의의 역사적 교훈과 삶을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달 18일 광주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의 5·18 민중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헌법으로 계승하는 연설을 들었다"며 " 그 이야기를 듣고 감정이 요동치기도 했다"고 밝혔다.

윤영일 전남대 민주동우회 사무국장은 "문 대통령에게 벽화복원추진위원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지만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국민이 민중항쟁도 뿐만 아니라 다른 아픈 역사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민중항쟁도(가로 10×세로 16m)는 지난 1990년 5·18 광주민중항쟁 10주년을 맞아 전남대 학생들이 전남대 사범대학 외벽에 그린 대형 벽화다. 전남대 학생운동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 작품은 27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벽화 곳곳의 페인트가 벗겨지고 훼손된 상태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5·18 진상규명 제대로…20일 전남대서 집담회 개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전남대 5·18연구소는 오는 20일 오후 5시 전남대 용봉관 회의실에서 6월 집담회를 연다.

연구소는 이번 집담회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준비중인 최경환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을 초청, 법안이 충실한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폭넓은 토론을 진행한다.

연구소는 이번 집담회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전남대 5·18연구소는 매월 집담회를 열고 ▲5·18기념사업 연구 ▲5·18항쟁 타임라인 재구성 ▲5·18관련 문화·예술운동 ▲5·18 의미 및 성격규정 ▲5·18 왜곡·폄훼 대응 등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법정 앞 폭행 당했다" 손배소송 지만원 2심도 패소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보수 논객' 지만원씨가 "(자신의) 형사재판에 나왔다가 법정 앞에서 폭행당했다"며 국가가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최석문 부장판사)는 14일 지씨와 지씨의 지인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촬영 사진에 나온 시민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하고 '5·18 광주의 유언비어는 위장한 천주교 신부들이 담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은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진 속 인물들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지난해 5월 첫 공판에 출석한 지씨는 재판 직후 법정 밖에서 30여명의 광주시민, 5·18 민주화운동 생존자 등과 마찰을 빚었고 몸싸움도 벌어졌다.

지씨는 법원 측이 보호해 주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국가에 1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인들도 그를 보호하려다 다쳤다며 각각 1000만원과 200만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목재펠릿 283만t
품질검사 없이 부정 수입
광양세관, 24개 업체 적발

광양세관은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부정하게 수입한 목재펠릿 283만t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관은 지난해 1월부터 산림청과 함께 수입 목재펠릿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최근까지 경남 진주의 A업체 등 24개 업체를 적발하고 19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수입 업체는 통관에 앞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업체는 2014년부터 2년 6개월간 7000억원 상당의 목재펠릿 283만t을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화력발전소 등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1개 업체는 비소나 카드뮴 등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품질검사 합격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통관을 시도하다 적발돼 1499t이 반송됐다. 일부 업체는 품질이 낮아 산업용으로 쓰이는 3~4등급 제품을 가정용인 1등급 제품으로 허위 표시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광양세관은 목재 부산물과 톱밥을 압축해 만든 목재펠릿이 화력발전소와 가정용 보일러 등에 사용하면서 불량 제품이 연료로 사용될 경우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보고 집중 단속을 벌였다.

/광양=김대수기자 kds@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광주 동구청은 14일 동구의회에서 '2017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동구청이 주관하고 동부소방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등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선 승강기 내 갇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 신고에서 구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훈련이 실시됐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세월호 진흙 분리작업 중 유골 1점 발견
추가 수습 가능성

세월호 3층에서 수거한 진흙 분리 작업 도중 사람 뼈로 추정되는 유골 한 점이 발견됐다.

14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작업자들이 세월호 3층 로비와 식당 구역에서 수거한 진흙을 거르는 작업을 하다가 이날 오전 7시 55분께 현재 사람 뼈로 추정되는 유골 한 점을 수습했다.

뼈가 나온 곳은 4층과 연결되는 계단이 있고 카페, 식당 공간까지 있는 넓은 공간이라 미수습자 추가 수습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던 곳이다. 그러나 이곳에 대한 수색이 92%가량 완료되도록 미수습자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습본부는 남은 공간이 많지 않지만 중간중간 움푹 팬 공간이 있어 추가 수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수습본부는 세월호 객실부인 3~5층 44개 구역 중 39곳의 1차 수색을 완료했다. 단원고 학생 객실이 있던 4층은 수색이 끝났으며, 일반인 객실과 식당 등이 있는 3층과 교사·승무원 객실 등이 있는 5층도 이번 주말까지 1차 수색을 완료하게 된다.

수습본부는 이날 3층 로비와 식당, 주방 뒤쪽 객실, 5층 귀빈실 등 5곳에 대한 수색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알고 지내던 사람 집서 가전제품 싹쓸이 절도

쌍나팔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얼굴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서행.

○…14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A(29)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남구 양림동 2층 주택에 사는 B(28)씨의 집에 몰래 침입, 컴퓨터와 TV 등 31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훔쳐 양림동의 한 중고가전매장에 판 혐의.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예비군 불참으로 향군법을 위반해 지난달 11일 광주지검에서 수배중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 관계자는 "절도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며 "일단 향군법 위반에 따른 벌금 미납(100만원)으로 A씨의 신병을 광주지검에 인계했다"고 설명.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3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6타경16823	2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 670 화순청전아파트 104동 9층 908호 59.99㎡	아파트	123,000,000 123,000,000	2016.10.13관리비 600,000원연체중
2016타경20068	1	북구 삼각동 533 그린타운 108동 3층 301호 59.82㎡	아파트	133,000,000 133,000,000	
2016타경65542	1	광산구 송정동 585 송정이다움아파트 101동 6층 605호 84.0544㎡	아파트	201,000,000 201,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6타경63478	2	서구 풍암동 1071-4 335.8㎡ 제시외 상가 등 138.37㎡	대	983,882,130 983,882,130	일괄매각.제시외 건물,옥상기계실 포함
		서구 풍암2로57번길14 10가구 1층52.87㎡[1층무단증축[소매점49.25㎡]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3,819,000원,위반사항원상복구 시까지부과예정] 2,3층각183.78㎡ 4층179.11㎡	다가구주택,음식점		
[대지/임야/전답]					
2016타경16823	1	화순군 동복면 가수리 산25 22809㎡	임야	23,949,450 23,949,450	연고미상분묘소재,맹지
2016타경19211	1	북구 삼각동 211 694㎡[매각제외농작물및 농기구있음]	전	294,950,000 294,950,000	남측일부도시계획시설도로저촉
2016타경19389	2	나주시 남평읍 대교리 295 601㎡	전	82,811,000 82,811,0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295-1 311㎡	전		
	3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 419-5 2718㎡[소하천[가흥천]저촉,묵답]	답	43,488,000 43,48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6타경20518	1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206-10 2247㎡[인근의지적경계불명하므로지적경계복원측량요]	답	31,458,000 31,45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6타경63317	1	동구 산수동 100-2 463㎡	대	139,826,000 139,826,000	토지만매각,제시외건물제외
2016타경65160	1	화순군 북면 용곡리 60 154㎡[현황전]	답	2,380,800 2,380,8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60-2 94㎡[현황전][물건번호1:원상회복명령가능성있음,지적도상맹지]	답		
2016타경65160	2	담양군 대덕면 성곡리 451-5 2334㎡	답	23,006,200 23,006,200	일괄매각,지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451-7 131㎡[물건번호2:권순덕3/33,류재권,유경희,류희정,류재동각2/33지분전부.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답		
2016타경65283	1	장성군 황룡면 옥정리455-49 20㎡[현황창고[집하장]부지.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820,000 820,000	2017타경573[중복]
[기타]					
2016타경19266	1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30-1 132㎡	대	44,259,000 44,259,0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동소 30-1 87㎡ 제시외 다용도실 등 28.8㎡[물건번호1:제시외건물중다용도실인접지번에다소과재되어있음,정확한경계측량요]	단독주택		
2016타경19389	1	나주시 남평읍 세남로 1759-8 26.45㎡[현황27.89㎡] 부속건물 부속사16.53㎡[현황17.73㎡] 제시외 화장실 1.9㎡	단독주택	71,319,000 71,319,0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조경수및유실수포함,목록1일부증축
		나주시 남평읍 대교리 282 400㎡	대		
2016타경19969	1	영광군 군서면 만금리 564-45 648㎡[현황일부도로]	대	51,880,800 51,880,8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의한기계기구목록참조
		영광군 군서면 관산로1길 139-12 81㎡ 제시외 창고 등 8.9㎡,기계기구목록참조[물건번호1:이동가능비닐하우스매각제외]	근린시설		
2016타경20303	1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692-3 26㎡	대	17,283,200 17,283,2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영광군 법성면 진굴비길 91 26㎡ 제시외 창고 19.2㎡	점포		
2016타경65078	1	서구 농성동 35 126㎡[윤창순지분1/5전부]	대	14,361,100 14,361,100	일괄매각,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서구 상무대로 1200-6 33.76㎡ 부속건물 증축주택16.12㎡[현황40.73㎡] 변소3.6㎡[현황5.88㎡][건물일부사건외인접지침범][윤창순지분1/5전부]	단독주택		
2016타경65283	2	동소 455-20 506㎡	잡종지	124,696,000 124,696,000	일괄매각.2017타경573[중복]
		장성군 황룡면 강변로 155 집하장 330㎡[물건번호2:건물내수조,칸막이포함]	창고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7. 6. 29. [목]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7. 7. 6. [목]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7. 6. 15.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민우